

# “日 요미우리와 맞붙고 싶다”

## KIA 조범현 감독 인터뷰

“일본 최고의 인기 구단 요미우리와 대결하고 싶다.”

12년만에 'V10'의 위업을 달성한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한·일 챔피언스 시리즈 승리를 노리고 있다. 남해에서 훈련을 시작한 선수단은 14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한일전을 갖는다.

조 감독은 “전력 누수가 많지만 다행히 한국시리즈에서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던 김상현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진행중인 일본시리즈에서 니혼햄보다는 이왕이면 일본의 최고 인기구단인 요미우리가 이겨 상대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 감독은 “팀 전력에 베스트는 아니지만 한국시리즈 우승을 통해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만큼 좋은 승부를 펼쳐 우승을 하고 돌아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로제츠·구본슨이 미국으로 출국한데 이어 윤석민·이용규는 5일부터 4주간의 군사훈련에 들어간다. 한기주와 장성호는 팔꿈치와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어 참가가 어렵다.

부임 2년만에 KIA의 페넌트레이스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조 감독은 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스러웠다며 우승 소회를 밝혔다.

조 감독은 “10번의 우승을 한 명문구단답게 KIA팬들의 야구 열정과 자부심이 높다”면서 “KIA 사령탑으로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명가재건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최하위 팀에서 우승팀으로의 극적인 반전의 중심에는 ‘변화의 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처음 팀을 맡았을 때 스스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부족했고, 팀이 우선이 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다. 생각하는 플레이와 팀워크를 강조했는데 많은 훈련과 연습 그리고 경기를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선수들 스스로 변화했다”며 “이중법은 팀플레이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팀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안치홍·나지완 등 재능있는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준 것도 정해진 팀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앞선 경기에서 부진했던 나지완을 한국시리즈 7차전 3번타자로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1·2차전때는 긴장하는 게



KIA 타이거즈의 'V10'을 달성한 조범현 감독이 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과 우승 소회를 밝혔다.

## “14일 한·일 챔피언스 시리즈 꼭 이기고 돌아올 것 나지완, KS서 당당한 모습 좋아 끝까지 믿어”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놀랐다”면서 “그 당당한 모습이 좋았고, 4차전때부터 타격감도 좋아서 나지완을 끝까지 믿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단행한 선수단 정리 작업은 더 새롭고 강한 팀을 조직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우승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긴장상태에서 팀을 최우선으로 해 변화

하고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도자로서의 큰 영예인 한국시리즈 우승 감독의 반열에 오른 조 감독은 더 강한 KIA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SK가 김광현, 박경만 등 주력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지 않았다면 쉽게 우승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KIA가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1·2군의 격차를 줄이고 더 강한 팀을

만들어 명가재건을 완성하겠다.” 2년의 임기로 지난 2008년 출범한 조범현 감독. 아직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 감독의 ‘V11’ 구상은 이미 완성돼 있다. 그에 앞서 조 감독은 한·일 챔피언스 시리즈 우승으로 2009시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남해서 마무리 훈련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시작됐다.

KIA 선수단이 1일 남해에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다.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과 2010년 1차 지명 삼동섭을 비롯한 신인 7명 등 38명의 선수가 1차 참가자로 캠프에 짐을 풀었다.

이번 남해캠프는 11월 말까지 계속되며 9일부터는 한·일 챔피언스 시리즈에 참가하

는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2차 훈련에 들어간다.

4일까지 훈련을 갖는 선수단은 5일 광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 뒤 6일 남해에서 훈련을 재개한다. 7일에는 LG와의 연습경기 가 예정되어 있다.

한·일 챔피언스 시리즈 참가 선수단은 9일 휴식 뒤 10·11일 광주에서 훈련을 하고, 12일 결전지 일본으로 출국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6강 PO행 막차 탔다

### 서울과 비겨 6위 지켜

### 전북 우승, 광주 11위



전남 드래곤즈가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는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2009 K-리그 최종전에서 1-1로 비겼다. 승점 1점을 추가한 전남은 경남 FC를 승점 2점차로 따돌리며 6위를 지켜 6강 플레이오프 출전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후반 32분 데얀의 중거리포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44분 터진 정윤성의 찬금같은 동점골로 1-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무승부로 최종전을 장식한 전남은 11승9무8패(승점 42)로 7위 경남(10승10무8패·승점 40)을 따돌리고

6개 팀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무대에 합류했다.

플레이오프 막차를 탄 전남은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6강 플레이오프에서 3위 서울과 재대결한다.

올전 전남이 1위를 지키며 K-리그 무대에 돌풍을 일으켰던 상무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과의 최종전에서 1-3으로 역전패 당했다. 상무는 전남 5분 최원권의 선취골로 기세를 잡았지만 지난해까지 상무 소속으로 활약했던 곽창현에게 두 골을 내주는 등 대전에 1-3으로 패했다.

하반기 13경기에서 무승(1무 12패)을 기록한 상무는 11위(9승3무16패)로 시즌을 마감했다.

전북 현대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경남 FC와의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득점왕(20골) 이동국의 활약으로 4-2로 승리하며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온 지단 '아트 사커' 전수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경기장에서 열린 다는 네이션스컵 결승전에서 다는 네이션스컵 홍보대사인 프랑스의 축구 영웅 지네딘 지단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워킹업을 돕고 있다. 다는 네이션스컵은 프랑스의 식품기업 다는이 세계 각국의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축구경기다.

연철뉴스

## 2년 연속 프로선수 배출

### 호남대 골프학과

호남대 골프학과(지도교수 이 율)가 호남 지역의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2명씩의 프로선수를 배출하면서 PGA 프로선수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남대 송경태(골프학과 2년), 유문석(체육학과 졸업)은 지난달 26일부터 익산 베어리버에서 열린 2009 PGA프로테스트에 합격해 프로에 입문했다.

또 지난해에도 박홍주(골프학과 2년), 이대준(골프학과 4년)이 호남지역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PGA프로테스트에 합격해 골프평문임을 입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일(월)

▲2009 챔피언스투어 찰스슈왈츠 챔피언십 FR(06 : 30·SBS골프)

▲한중 대학축구 친선경기(13 : 50·KBS n스포츠)

▲제14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4강전(14 : 10·KBS1)

▲09/10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금호생명)(16 : 50·SBS스포츠)

▲2009 W K리그(충남일화 : 현대제철)(18 : 50·KBS n스포츠)

3일(화)

▲2009 PGA 바이킹 클래식 2R(04 : 30·SBS골프)

한길부동산중개

주유소 매매

북구 중흥동 1.250㎡ 매매가 12억(임대가)

전원주택 매매

금산공인중개사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용지 (C1지역)매매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대표:성 불규 (방학동투어 16-07-20)

Table with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

해령법률경매

Table with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including Gwangju, Jeonnam, and Jeonbuk.